

아버지에 갇힌 주체에서 어머니로 열리는 주체

이해진*

〈국문초록〉

전통적인 생물학적 결정론에 따르면 주체는 고정된 것으로, 여기에 근거하여 성별 분업이 정당화된다. 프로이트는 성별 정체성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획득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페미니즘과 친화성을 갖는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주체 형성과정에 어머니를 삭제하고 아버지 혹은 남근을 유일한 원리로 동원하여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멜라니 클라인의 주체 구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클라인은 성적체성 형성의 토대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이동시킴으로써 삭제된 어머니를 복원시키고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이 주목할 부분이 있다. 프로이트에게서 어머니는 주 양육자로서 아이의 단순한 애착대상에 불과하지만, 클라인에 오면 어머니는 아이의 정체성을 구조하는 의미 있는 대상으로 변경된다. 이런 점에서 클라인은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며 페미니즘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멜라니 클라인, 원초적 여성성, 결합된 부모 이마고,
주체 구성, 성적체성

* 국민대학교 강사. hjee0053@hanmail.net
『젠더와 문화』 제4권 1호(2011) pp. 131-165
© 201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는 말

성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페미니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페미니즘에서 성정체성에 주목하고 논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결정론이 성별로 위계화된 사회적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성별 이데올로기를 지원하는데 동원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전통적인 생물학적 결정론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근거하여 모성을 여성에 고유하고 내재된 본질로 부과하고 여성의 지위를 어머니로 제한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의 주요 토대가 되는 성별 분업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생물학적 결정론은 신체라는 근본적인 물질성에 근거하여 주체의 고정성을 주장한다. 몸에 근거하여 성별성을 규정하는 인식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데카르트(Descartes)의 근대 주체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기간 동안 거의 유일한 사회적 원리로 통용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주체는 존재론적 안정성을 획득하고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며, 고정된 정체성에 따라 성별 분업이 수용되고 사회적 원리로 통용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성별 위계와 여성 차별의 기반인 생물학적 결정론을 파열시키고 주체의 가변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은 프로이트(Freud)의 구성론을 통해서이다. 프로이트는 주체성의 근간인 성별 정체성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형성됨을 이론화하여 생물학적 결정론이 지배하던 당시의 인식체계를 뒤흔들고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성

별 정체성이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 속에서 획득하는 것이라는 프로이트의 주장에 기반하여 기성의 질서에 도전하고 성별관계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유용성의 한편으로 프로이트의 논의 안에서 성정체성 형성과정이 거의 전적으로 ‘아버지-남근’에 기초하고 있어 어머니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클라인(Klein)의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프로이트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클라인은 성별 정체성의 구성 원리를 어머니로 변경하여 프로이트에게서 삭제된 어머니를 되살려낸다. 전-오이디푸스 단계에서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이와의 긴밀한 관계가 주체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 다시 말해 아이의 최초 대상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을 분석함으로써 성정체성 형성의 토대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이동하고 공백으로 남겨진 어머니를 복구시킨다. 이와 같은 클라인의 업적은 프로이트의 남근중심주의를 비판하는 페미니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인 것이다.

이 글에서 클라인의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프로이트 이후 그 영향력이 쇠퇴한 생물학적 결정론의 반격이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징후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결정론은 진화론, 사회생물학, 성과학, 신경생리학 등과 같은 여러 분과 학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달, 그 가운데 뇌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구성론을 공격하며 과거의 지위를 탈환하고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뇌과학은 뇌의 기능과 활동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들어 ‘과학적 객관성’을 표방하며

생물학적 결정론으로의 귀환을 위한 논리적 배경으로 삼는다.¹⁾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신경계의 활동으로 축소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노에(Noe)는 자기공명영상장치에 나타나는 영상들이 의식이나 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즉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현상의 흔적들이 아니라 실험자의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추측이나 가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의식을 화학적 혹은 생리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시도를 반박한다(노에, 2009: 13-50). 마음과 의식은 나의 뇌를 넘어서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주관성이 구성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생리적 과정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재귀환 시도와 그에 대한 반격을 주목해볼 때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구성성을 보다 확장시켜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클라인의 논의를 통해 성장체성에 관한 구성적 논의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프로이트의 주체와 아버지 알리바이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남근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이트는 성별 정체성이 몸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는 혁신적인 주장

1)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는 통로인 뇌량의 차이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상이성을 주장하는데, 이때에도 뇌과학이 활용된다.

을 하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이는 성정체성이 미분화된 상태로 태어나며 이후 남근기에 와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성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전(前)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유아는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는 이자(二者)관계를 형성한다. 이 시기 아이의 성정체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어머니와 매우 견고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존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러나 남근기에 접어들어 아이가 여성과 남성의 외부 성기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어머니와의 이자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아버지는 남아에게는 남근 절단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대상으로, 여아에게는 결핍된 남근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 개입하여 가족 내부의 애착관계에 변화와 긴장이 초래되는 것이다.

출생 이후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강한 유대를 유지하던 여아는 오이디푸스 단계로 넘어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초기 애착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애정 대상으로 변경한다. 남자와 여자의 성기적 차이를 인지하게 된 여아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대신 자신도 남아와 같이 남근을 갖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다. 그러나 이 소망의 성취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된 여아는 남근선망을 버리고 남근을 대리할 아기를 갖고자 하며, 그것을 실현시켜줄 대상으로 아버지를 취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아버지를 애정의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어머니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대신 먼 훗날의 소망으로 연기시키면서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성을 획득하게 되고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로써 “이제 어머니는 질

투의 대상이 되고 소녀는 작은 여성으로 변모하게 되며(프로이트, 1996: 312)”,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아는 자신의 여성성과 모성을 동일시하면서 기존의 가족제도를 재생산(임옥희, 2003: 23)하게 되는 것이다.

여아와 달리 남아는 다른 경로를 걷는다. 남아는 전오이디푸스 시기부터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초기 애착관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므로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긴장관계는 파국을 맞게 되는데 그것을 초래하는 것 또한 아이가 남성 생식기에 대한 지각을 획득하게 되면서이다. 여성과 남성의 외부 생식기의 차이를 알게 된 남아는 자신과 다른 여아의 돌출된 외부 생식기 부재를 거세된 때문으로 생각하며, 이를 자신의 생식기 거세 가능성으로 연결한다.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자신의 생식기를 거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생식기가 주는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포기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욕망은 훗날로 연기되며 남근 권력자인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해 남성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세 콤플렉스를 극복한 남아는 아버지의 권위와 법을 인정하고 내면화함으로써 미래의 가부장적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장미경, 1999: 137).

이상이 프로이트가 주장하는바 무성적 존재인 유아가 성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분화된 성적 존재인 아이는 비로소 사회문화적인 성으로서의 젠더를 구성하게 된다. 생물학적 결정론에 의거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되어 온 주체의 고정성을 해체하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모든 안정적인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

는 페미니즘과 특별한 친화력(호머, 2006: 217)을 형성하게 되며, 생물학적 변화보다 사회문화적 변혁을 꾀하는 페미니즘 진영에 논거를 제공해 주었다(장미경, 1999: 150). 이를 기반으로 성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구성론으로 혁명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주장에 토대하여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인 생물학적 결정론의 견고한 성체에 균열을 가하고 남성 위계적인 성차별적인 질서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2) 프로이트의 아버지 알리바이에 대한 비판

슬로터다이크(Slaterdijk)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 속에는 늘 인간적으로 ‘덧붙여진 것’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즉, 자연은 그 자체로 의미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적 산물로, 해석에 의해 의미를 확보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슬로터다이크가 제시하는 함의는 자연으로 쉽게 치환되어 버리는 ‘인간의 몸’이라는 물질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생물학적 몸과 긴밀하게 연관되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사회적 자기 조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담론적 산물(슬로터다이크, 2005: 135)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해러웨이(Haraway) 또한 신체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상징적 코드들이 각인되는 장이라 주장하며 물리적 신체 위에 आरो 새겨지는 사회적 함의들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면서 신체의 경계를 넘어 테크놀로지와 몸과의 혼종성을 주장한다(해러웨이, 2002).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도 신체의 개념을 유연화하는 시각을 공유하며, 신체를 사회적, 상징적 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으로 인식하고 신체가 생물학적 실체가 아님을 지적한

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그의 저작물 『천개의 고원』에서 주체를 고정화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리좀적 주체’는 이러한 인식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들뢰즈·가타리, 2001). 버틀러(Butler) 또한 젠더는 일련의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며, 젠더화된 몸의 양식을 통해 그 위치가 정해진다는 ‘수행적 정체성’(버틀러, 2008: 55)의 개념을 제시하며 안정적 정체체성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이상과 같은 고정된 (성)정체성을 부정하는 다양한 시각들은 프로이트가 정초한 이론에 빚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가 페미니즘이나 정체체성을 둘러싼 논쟁에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남근의 존재 유무를 핵심적인 주체화의 원리로 제시하여 남성의 우월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다. 여아의 성기의 부재를 결핍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대의 남근 중심적 사회에서 남근에 부여하는 특권과 상징적 의미를 투과하여 재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이다. 브라이도티(Braidotti)는 프로이트에 대해 심지어 ‘외디푸스적 음모’라고 공격하며(브라이도티, 2004), 이리가라이(Irigaray)는 정신분석학이 차이의 가시성에 근거하여 성차를 이해하기 때문에 여성은 항상 남성적 기준의 부재나 부정으로써 지각되어 결과적으로 재현으로부터 배제되므로 가부장적 격자 안에 갇히지 않는 여성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여성의 성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남근일원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남근일원론을 벗어나고자 시도한다(호머, 2006: 220-221).

프로이트 논의는 남근의 상징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어머니를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단지 외부적 환경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또한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이트의 주장을 반박하는 후속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일찍이 1920년대부터 프로이트의 주장에 수정을 가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그 중심에는 존스(Jones), 리비에르(Riviere), 하니(Honey) 등과 같은 일군의 여성정신분석학자들이 있었다. 존스는 일찍이 프로이트의 남근일원론을 비판하며 여성은 처음부터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홍준기, 2005: 228-229). 리비에르는 여성성이 남성성이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라고 하며 본질적인 여성성과 동시에 프로이트의 주장까지 부정한다(호머, 2006: 190). 하니는 모성선망을 통해서 프로이트의 해석을 남근이 아닌 여성의 출산기능으로 대체하는데, 그녀에 따르면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의 출산 기능을 강하게 선망하며, 재생산에 대한 남성 역할의 비대칭성이 다른 방식의 재생산, 즉 문화적 생산성으로 전이된다고 주장한다. 하니의 주장은 단순히 남근에서 자궁으로 기계적인 대체에 그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형성되는 역동성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만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성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프로이트가 암암리에 가부장적 시각을 이론적 하부로 함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홍준기(2005)는 프로이트가 남성적 리비도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은 하나의 리비도만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총동 그 자체는 성구분이 없으므로 그것 자체에 성별을 부여하여서는 안되며, 성구분은 남근기에 와야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남근 중심적인 해석이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프로이트의 주장은 성구분을 알지 못하던 주체가 어떻게 성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분석적 이론이지 남근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증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프로이트의 주장이 생물학적 이론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옹호한다.

한편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성정신분석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라캉은 프로이트의 규범적인 기준점이 남성의 육체와 남성의 성적 특성, 생물학적 남근으로 지시됨으로써 남성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 남근, 즉 기표로서의 ‘팔루스’로 대체하여 프로이트를 구출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라캉 또한 남성을 기준으로 삼고 여성을 그와 다른 것으로 보는 ‘남근 중심적 이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임현주, 2003: 227). 물리적 남근을 팔루스로 대체하더라도 주체는 상징계의 법인 아버지에게 토대한다는 점에서 주체 형성의 절대적인 변수가 여전히 아버지로 대표되는 것이므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라캉에서도 어머니는 상징계로 이행하기 전 상상계에 기거하는 전(前)언어적 세계로 상정되기 때문에 프로이트나 라캉은 다 같이 어머니의 배제나 부재를 의미하게 된다.

3. 공백에서 복원으로, 되살아나는 어머니

1) 어머니라는 최초 대상

클라인은 프로이트에 토대하지만 자신만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그와 다른 관점에서 성적체성 형성과정을 이론화 하였다. 클라인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점이자 프로이트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은 유아가 성적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 (젓가슴을 가진) 어머니라는 사실이다. 어머니는 아이가 생후 처음 대면하는 세계이자 주체 발달을 조형하는 환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박선영, 2004: 415)로 새롭게 환기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반면에 프로이트에게서 핵심 원리로 제시되는 남근은 어머니의 젓가슴에 포함된 이차적 위치를 차지하며 오히려 어머니의 부속물로 격하(크리스테바, 2006: 236)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기까지 한다.

프로이트에 대한 정신분석 내부의 비판이나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공통적으로 성적체성 형성 과정에 어머니를 배제하고 아버지 혹은 남근을 유일한 원리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에 클라인 또한 가세하지만 하니처럼 남근선망을 모성기능에 대한 선망으로 기계적으로 대치하여 아버지를 배제시키는 것과 같이 단순히 프로이트를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 클라인에게 아이가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라는 최초 대상과 맺는 관계이다. 유아가 어머니의 수유와 그 존재로부터 받는 경험은 첫 번째 대상관계를 발생시킨다(박선영, 2004: 252). 유아는 비록 초보적 형태이기는 하나 불안전한 자아를 보유²⁾하고 어

머니와 역동적인 대상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대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체에게 자리 잡을 때 주체 형성의 만족스러운 토대가 마련(Klein, 1975: 178)되는 것이다. 주체의 발달에 가장 시원적인 환경을 이루는 어머니의 영향력은 유아기 초기뿐만 아니라 오이디푸스 시기를 지나 성분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연장되며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유아가 통합적 주체로 성장해 나가는 발달 경로에서도 클라인은 프로이트와 달리 독자적인 진로를 개진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로이트에서 유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등과 같은 발달 경로를 경유하게 된다. 반면, 클라인에서는 편집-분열적 위치(paranoid-schizoid position)와 우울적 위치(depressive position)를 경유한다. 클라인은 프로이트가 사용한 ‘단계(stage)’라는 용어 대신 ‘위치(posi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용어의 변경은 아이가 보이는 발달 과정이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선형성과 공시성을 동시에 가지는 병존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아의 발달이 하나의 발달 단계를 거치고 그 단계를 완결한 후, 다음 발달 단계로 이동하는 엄격한 연대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후 초기 리비도의 발달 단계는 서로 혼재하고 뒤섞이는 공시적 구조(크리스테바, 2006: 137)라고 보아 유아의 변화하는 심리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2)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단계 이전까지 유아의 자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의 유기체 수준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클라인은 비록 원시적 형태이기는 하나 유아의 자아 존재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클라인의 발견은 정신분석의 주요 공헌으로 여겨진다. 클라인의 아동 분석 사례 중 한 명인 리타는 멸절에 대한 두려움을 분열로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방어기체에서 클라인은 유아에게도 아주 초기부터 자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 편집-분열적 위치

주체 발달의 초기를 모형화하는 편집-분열적 위치는 생후 3-4개월 경에 시작된다. 생후 초기 유아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자신과 대상, 실재와 환상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적 욕구의 좌절, 즉 허기로 인해 자신이 멸절(annihilation)되어 죽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아이의 정서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죽음충동에 기반 하고 있으며, 출생 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겪는 '출생외상'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클라인에 따르면 아이에게 죽음 충동은 매우 초기부터 존재하며 아이는 분열을 기제로 사용하여 멸절에 대한 공포를 방어하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 아이는 어머니라는 대상을 통합적인 존재로 인지하지 못하고 젖가슴, 손, 얼굴 등과 같은 부분 대상으로 파편화하여 인식하는데, 아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은 젖가슴이다. 아이는 자신에게 젖을 제공하고 생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씹는 젖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Klein, 1975: 183). 어머니에게 생존을 의탁하는 아이는 (젖가슴을 가진) 어머니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악을 막아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다. 아이의 환상 속에서 어머니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이는 끊임없이 젖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한편, 이 젖가슴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양가적인 심리를 가진다. 아이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음식과 사랑과 안락함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에 질투심을 가지고 시기하는 것이다(시걸,

1999: 159).

아이가 어머니의 전능성에 관한 환상과 요구를 갖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파괴적 충동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아이의 맹목적인 욕구나 환상과 달리 어머니의 젖가슴은 아이가 원할 때마다 젖을 주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충분한 젖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이는 생리적 불쾌감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욕망 충족 여부에 따라 젖가슴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시키고, 배고픔과 허기와 불쾌를 일으키는 젖가슴은 나쁜 대상으로, 충분한 젖과 쾌감을 주는 젖가슴은 좋은 대상으로 구분하고, 좋은 대상은 자신의 내부로 가져와 내사하고 동일시한다(Klein, 1975: 178). 만족을 주는 어머니의 젖가슴의 내사는 아이가 불안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아의 핵심 부분을 이루게 된다. 아이가 내사하는 어머니는 아이의 환상 속에서 구성된 것이기는 하나 실제의 어머니와 전적으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존재는 아이의 환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주체 형성의 중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이는 좋은 젖가슴은 자신의 내부로 영입하는 반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나쁜 젖가슴, 즉 나쁜 대상에 대해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 여겨 공격성을 투사하고 외부로 축출하고자 한다. 이것이 편집-분열적 위치의 주요 정서인 ‘박해 불안’이다. 아이가 느끼는 박해 불안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근원에 존재하는 불안-죽음 충동이지만 유아는 내면에 존재하는 파괴적 충동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파괴성과 공격성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다. 아이가 보이는 공격성은 박해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투사와 분열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며 대상과 관계하는 것이다.

아이의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에 대한 방어구조는 자아의 발달이기도 하며 유아의 방어 메커니즘은 자아와 초자아의 발달과 대상관계의 발달을 포함하여 발달의 전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박선영, 2004: 252). 클라인이 분석했던 리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분열은 박해 불안을 방어하고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 아이가 가동하는 방어적 메커니즘이다. 박해 불안을 피하기 위해 아이가 사용하는 분열은 이 위치에서 아이가 작동하는 필수적인 방어메커니즘이다. 대상에 대한 내사와 투사를 반복하면서 부분적으로 대상과 자아를 보존하던 아이는 점차적으로 분열을 극복하고 불안에 대처하면서 자아의 통합을 이루고 편집-분열적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2) 우울적 위치

생후 3-6개월쯤에 이르게 되면 아이는 편집-분열적 위치에서 벗어나 우울적 위치로 진입하게 된다. 우울적 위치에서 아이는 환상과 외적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므로 편집-분열적 위치에서 가졌던 의식의 파열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하여 보다 발달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 오면 “유아는 보다 더 강하고 통합적인 자아를 가지게 되어”(Klein, 1975: 194) 어머니에 대한 인식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편집-분열적 위치에서 유아는 어머니를 부분대상으로 분절하여 생각하였으나 이제 완전한 신체성을 가진 통합된 사람으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쁜 어머니/좋은 어머니, 좌절하게 하는 어머니/쾌감을 주는 어머니, 부재

하는 어머니/존재하는 어머니로 분열하여 받아들였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동일한 어머니라는 사실도 파악하게 된다. 나쁜 젓가슴과 좋은 젓가슴도 결국 동일한 어머니의 것이고, 나쁜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사실은 자신의 공격성이며, 자신의 공격성을 투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Klein, 1975: 203).

자아의 성숙으로 어머니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아이는 자신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머니의 나쁜 부분, 즉 나쁜 젓가슴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그에 따라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변화한다(박선영, 2004: 297-299). 아이는 어머니를 하나의 실제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어머니를 자신의 내부로 가져와 자신과 동일화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울적 위치에 이르게 되면 편집-분열적 위치에서 나쁜 젓가슴(어머니), 즉 나쁜 대상에게 가졌던 아이의 분노와 증오가 완화된다. 어머니라는 대상과의 거리와 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증오가 완화되고 대상에 대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애착대상인 어머니를 좋은 대상/나쁜 대상으로 분할하지 않고 전체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주체의 발달에 가장 전제가 되는 어머니의 상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크리스테바, 2006: 149).

어머니를 젓가슴과 같은 부분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아이에게는 새로운 정서가 생겨난다.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사랑과 보살핌, 음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어머니를 미워하고 공격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공격하고 미워했다는 인식은 아이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 죄의식은 우울적 위

치에서 유아의 정서적 중추를 이루는 ‘우울 불안’이다. 우울감정은 자신이 공격했던 좋은 대상을 회복하려는 욕망을 가동시키므로 주체 형성의 토대가 되는 상징화와 창조성의 원천이 된다. 아이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 어머니를 다시 복원하고자 한다. 상실한 어머니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화 작업 속에서 주체의 상징적 능력이 조직된다(크리스테바, 2006: 155). 아이가 상실한 대상을 상징화하는 것은 어머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대상의 상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머니에 대한 공격과 상실의 심리적 결과로 아이가 갖는 이 죄책감은 이후 정서적인 성숙의 토대를 이루고, 감사, 사랑, 관심, 배려 등을 가진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전제로 작동한다. 이 불안감은 아이가 우울적 위치를 통과하고 통합적인 자아가 구축되면서 극복되며 그로써 아이는 어머니에게 공격성을 투사했던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어머니 상실과 오이디푸스

초기 유아의 발달과정 전반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주조를 이루는 것처럼 클라인에게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또한 어머니와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의 발전과 쇠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Klein, 1975: 197). 클라인에게 있어서 오이디푸스 과정은 프로이트에서 보듯 일반적인 대상 상실이 아니라 이유(離乳)와 관련된 경험(박선영, 2004: 347)에 기인하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다. 편집-분열적 위치를 지나 우울적 위치가 확립되면 그와 동시에 오이디푸스적 갈등 또한 시작되며, 우울적 위치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그 시기나 구조면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3세경에 오이디푸스 갈등이 시작되는 프로이트와 비교하여 클라인의 오이디푸스 단계는 시기적으로 매우 선행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환상과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 사실에 토대하여 그 시기를 전격적으로 이동하였다(홍준기, 2005: 228)³⁾. 또한 클라인은 전오이디푸스 시기를 아이와 어머니와의 이차관계로 규정하는 프로이트와 달리 이 시기에서도 이미 아이가 아버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는데, 클라인의 발견은 정신분석학계의 주목할 공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라캉 또한 클라인의 입장에 동의한다.

시기의 이동뿐만 아니라 오이디푸스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클라인과 프로이트는 서로 상이한 원천에서 시작한다. 프로이트에게서 오이디푸스 단계로 이행하는 중요한 단서는 아이가 남근을 발견하게 되면서이다. 여성과 남성의 외부 성기의 차이를 인식한 아이가 거세 공포를 현실화하면서 근친상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오이디푸스 시기의 주요 드라마로 남근의 존재유무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반면 클라인에게서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이동은 남근을 통한 근친상

3) 리타는 심한 밤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 분석 당시 리타는 2살 9개월의 나이였지만 부모의 성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환상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공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리타의 징후는 오이디푸스 갈등이 프로이트가 주장한 것 보다 선행적 현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간의 소망의 좌절이 아니라 젖떼기에서 경험한 좌절에 의해 활성화된다. 성장과정에서 이유(離乳)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과정이므로 아이는 출생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구순적 좌절을 겪게 된다(홍준기, 2005: 243).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의 젖가슴은 애착과 욕망의 대상이자 동시에 배고픔을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주는 대상이다. 원시적 자아의 불분명한 경계성으로 아이는 자신과 어머니(젖가슴)를 공생적 합일체로 인식하고 상호 침투하면서 행복과 향유를 즐긴다. 그러나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분리를 요구받는 이유(離乳)는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제3자인 아버지의 존재를 부상시키고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완벽한 합일을 깨뜨린다.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아이는 어머니의 내부나 젖가슴 안에 남근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남근)아버지를 적대적인 침입자로 여기게 된다(Klein, 1975: 197).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아이와 어머니와의 이차관계가 훼손되고, 이것은 심각한 박탈과 좌절의 경험으로 작용한다(박선영, 2004: 370). 아이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좌절감을 주는 어머니에 대해 시기심을 느끼며 동시에 어머니를 빼앗아간 아버지의 남근에 대해서도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된다. 바로 이 삼자(三者)구도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야기하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독점적 소유의 환상이 와해되는 고통은 유아에게 강한 박해 불안을 일으킨다. 그렇지만 이 불안은 아버지의 남근이라는 새로운 구순적 대상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이동을 추동한다. 아이가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면 아버지의 남근이 어머니를 소유하고 조종하고 공격하고 혹은 복원하는 힘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를 탐내는데 그것이 바로 남근선망이다(시걸, 1999: 66). 아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잃어버리는 대신

아버지의 남근이라는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한다. 여아가 아버지에게 대해 가지는 생식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이제 어머니는 애착의 대상에서 오히려 남근을 두고 경합하는 경쟁자로 변화된다. 새로운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어머니의 젖가슴에 가졌던 아이의 시기심은 어머니를 소유한 아버지에게 대한 오이디푸스적 질투심으로 인해 완화되며 이제 구체적 대상인 아버지와 의 경쟁이라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서구조로 변화한다(박선영, 2004: 370-372). 질투심이 시기심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성기적 차이와 남근의 존재를 인지한 여아는 외부 성기의 부재라는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물로 아버지의 남근을 가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클라인에 오면 남근선망은 남성성의 상징인 남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순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여아가 가지는 남근선망은 남자와의 동일화의 욕망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채워지지 못한 욕망을 대체하기 위해(박주영, 2004: 23) 아버지의 남근을 자기 안으로 병합하려는 욕망(크리스테바, 2006: 188)으로 변하는 것이다. 구강충동의 대상인 젖가슴에서 생식기적 충동 대상인 남근으로의 욕망의 이전은 자연히 어머니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쇠퇴시킨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아이의 의식 속에 분열된 요소들은 생식기적 성으로 통합되고, 그때부터 자아는 동성부모와의 성적 동일화라는 지배적 양태를 취하며 성별 주체성을 형성하게 되며(Klein, 1975: 237),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동일한 성별 정체성을 확정하게 된다.

여아와 마찬가지로 남아가 경험하는 거세불안도 프로이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남아의 거세공포는 거세자로서의 아버지에게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을 환상으로 파괴시키는

사디즘적 공격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아이는 자신의 사디즘적 공격성을 (나쁜)어머니에게 투사하면서 동시에 그 어머니에 의해 보복 당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가진다. 따라서 클라인에게서 거세는 아버지의 권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권력으로 역전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성격이 금지된 쾌락과 그것에 대한 처벌의 공포를 둘러싼 투쟁이 아니라 권력과 원초적 공격성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의 공포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아이의 감정적 보상능력을 둘러싼 투쟁(이만우, 2002: 124)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와 클라인에게서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이동을 견인하는 요인은 서로 상이하지만 오이디푸스 단계로 이동한 이후,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프로이트와 동일하게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토대(홍준기, 2005: 232)하며 그에 기초하여 성분화를 이루게 된다. 클라인과 프로이트는 미분화된 상태의 유아가 서로 다른 출발과 경로를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오이디푸스 과정을 통해 성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귀착점으로 수렴한다. 아이가 오이디푸스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작업은 자아 속에 좋은 젖가슴(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창조적 쌍을 설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크리스테바, 2006: 159). 남아는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면서 어머니와의 동일화로 배태된 원초적 여성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남근을 통해 남성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클라인에게 남성성은 여성성의 억압의 결과로 이차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어머니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상상계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어 상징계로 진입하며 하나의 주체로서 도약하게 되는 것이다.

4. 멜라니 클라인의 주체와 어머니 알리바이

1) 모성적 주체에서 성별 분화된 주체로

우울적 위치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함으로써 유아는 최초의 오이디푸스적 대상을 상실하고 상징의 세계 즉, 주체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게 된다. 주체화의 진행 과정에는 ‘결합된 부모 이마고(combined parent figure)’라는 아이의 환상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이디푸스 시기 가장 초기 단계에서 유아는 부모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결합된 부모 이마고의 환상을 가진다. 이는 아이가 가진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환상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의 남근을 포함하고 있다는 환상, 혹은 어머니를 포함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환상(Klein, 1975: 197)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팔루스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의미한다. 아이가 이러한 환상을 가지는 것은 피터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성행위를 하는 부모를 목격한 경험과 인식에 근거하며, 이는 남녀 구분을 막연하게 알기는 하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아이에게 아직 완전한 성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함의한다(박선영, 2004: 23).

부모가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결합된 연결체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인식은 아이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혼란을 주게 된다. 아이는 결합된 부모 이마고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서로에게서 성적 쾌락을 얻는다고 느끼기도 한다. 아이가 가진 상충된 인식은 우울적 위치를 지나고 아이의 인식력이 성장하면서 변화를 보여 아이는 결합된 부모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아이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뒤이어 두 개의 전체 대상으로 분리하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다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서로 다른 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으로 발전한다. 결합된 부모 이마고는 아이의 성분화 과정에 어머니의 젓가슴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프로이트나 라캉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역할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모 양자가 필요하며, 양자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크리스테바, 2006: 236) 주장하는 것이다.

클라인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초기 애착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여아와 남아 모두 일차적으로 어머니와 동일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유아는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발달과정에서 누구나 ‘원초적 여성적 단계’ 혹은 모성적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 원초적 여성적 단계는 오이디푸스 단계에 앞서는 것으로 편집-우울적 위치에서 자아의 일부를 대상에게로 투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와 동일화하는 투사적 동일화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최초의 원시적 상징작용의 모습을 갖는다(박선영, 2004: 265). 프로이트에게서 어머니와의 동일화는 남근선망에 의해 자신의 지연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어머니와 동일화하는 여아에게만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클라인에 오면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어머니와 동일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와의 동일화는 이후 성분화를 조직화하는 발달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

한편, 유아가 발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동일시로 초기 여성화의 단계를 경험한다는 클라인의 입장에 대해 그것을 생물학적 여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

다. 어머니에 대한 동일화는 결과적으로 ‘팔루스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동일화라는 이유에서이다. 팔루스는 아이에게 환상 충족의 근원인 상징적 기표이지 생물학적 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생물학에 근거한 여자로서의 정체성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홍준기, 2005: 240). 그러나 사회적 성별관계 안에서 ‘여성’으로 위치화된 어머니와의 초기 동일시가 아이에게 주는 중요성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성성의 발달이 원초적 여성성을 부정한 이차적 발달이라는 클라인의 주장은 의의가 있다. 어머니와의 동일화로 인한 원초적 여성적 단계는 우울적 위치에서 아이가 어머니를 부분대상이 아니라 전체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변화하게 된다. 아이는 어머니를 자신과 별개의 개체로 구분하고, 이제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된다. 대상과의 분리는 성별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이후 적절한 상징화 작업을 거치면서 대상과의 거리를 확보하고 성분화를 이루게 된다(박선영, 2004: 300-301).

아이가 어머니의 부재 즉, 어머니라는 대상의 결핍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울적 위치의 성공적인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를 버리는 행위를 통해 아이는 비로소 어머니와 공생적 관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 또한 파편화된 부분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개체로 인지하게 되고, 심리적 자유가 가능한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는 아이의 주체화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의 몸으로 인식할 정도로 강한 애착의 대상이자 자신의 생존을 거의 전적으로 의탁해야 했던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떠나보내는 행위는 아이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 고통은 아이에게 트라

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창조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어머니를 상실하는 아픔과 떠나보내는 애도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주체의 토대이자 창조성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게 애도는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실을 확정짓고 거기에 투여했던 리비도를 철회하는 행위로 우울증이라는 병리적 현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클라인에게서는 아이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부에 상실한 대상을 재구성하는 상징화 작업을 위한 추진력으로 작용한다(크리스테바, 2006: 157). 이를 통해서 승화가 이루어지므로 애도는 상실이 아니라 아픔을 치유하고 비워진 공간을 메우기 위한 도약의 지점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2) 사회적 주체의 성별화 해체

페미니스트들이 프로이트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남근선망을 통한 주체의 형성과, 그로 인해 여성은 불가능한 주체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프로이트는 남근의 보유 여부를 두고 일어나는 성별 간 긴장의 불균형으로 여아에게는 초자아의 발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봉쇄한다.

프로이트에게서 초자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즉, 거세의 공포를 극복하고 아버지의 법을 내면화하는 것이 초자아의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가능한 영역이다. 남아에게 거세의 가능성이 함축하는 충격은 자아를 손상시킬 만큼 중대한 위협이다. 남자는 이 위협을 피하고 자신의 남근을 보존하기 위해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법을 내부에 설립

한다. 남아는 규제와 금지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법에 순응하는 결과로 초자아를 형성하고, 남성커뮤니티인 문화공동체의 일원 즉 공적 주체이자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게 된다.

남아와 달리 여아는 거세공포의 위협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법을 내면화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초자아의 발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문화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에서도 배제된다. 대신 여아에게는 자아에 리비도를 투영하는 나르시시즘을 부과하고 감정적 영역에 배치하여 사적 주체로 제한한다. 감정노동의 전담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규정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체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는 여성에게 초자아 가능성을 박탈하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미성숙을 공식화하여 페미니즘에 기여한 그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가부장적 렌즈를 통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와 대조적으로 클라인은 초자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전조로 등장하며, 어머니의 상실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여성에게도 초자아의 가능성이 부여된다. 아이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어머니를 상실하는 것은 주체의 설립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애정 대상의 상실이라는 정서적 체험은 자아와 대상, 세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장하여 주체의 발달을 촉진한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 즉 ‘어머니의 참수’는 내사에 수반되는 적대성을 극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체의 심리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가 되며 더 나아가 초자아의 발달과 성숙을 돕는다. 이런 이유에서 크리스테바(2006: 238)는 프로이트가 초자아 발달의 한 은유로 삼은 ‘부친 살해’와 비교하여 ‘모친 살해’가 ‘모친 숭배’보다 아이의 발달에 더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클라인은 성별과 관계없이 애착 대상인 어머니를 버리는 행위를 통한 초자아의 가능성을 이론화하여 프로이트에게서는 불가능한 여성의 주체성을 열어주고 있다. 클라인은 프로이트가 주체성 발달의 유일원리를 아버지에 토대함으로써 여성은 도덕적 주체가 불가능함을 선언했던 것과 달리 어머니를 경유함으로써 프로이트의 성차별적 인식과 결합을 보완하고 프로이트를 뛰어 넘는다. 여성 또한 남성과 동일하게 문화적·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로써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남근일원론과 암묵적 남성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듯 클라인에게서 유아가 성분화를 이루고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은 부분적으로 프로이트와 중첩되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과 시각을 통해 재구성된다. 클라인은 유아가 어머니와 맺는 관계를 경유하여 성정체성 발달을 재축조해 냄으로써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주의라는 단단한 각질을 뚫고 어머니를 되살려내고 있다. 클라인은 어머니에게로 주체의 구성에 관한 알리바이를 이동하지만 프로이트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삭제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어머니 젖가슴 속에 보존되며, 아버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통해 아이의 정체성 분화를 설명한다. 즉 유아의 최초 대상이자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에 토대하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를 보유하는 클라인의 해석에 대해 크리스테바는 커플에 근거한 성분화에 관한 최초의 정신분석학적 모델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크리스테바, 2006: 236). 또한 이와 같은 클라인의 해석과 접근은 이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구조적 사실로 해석하는

라깡 이론을 위한 길을 터주게 된다(홍준기, 2005: 259).

클라인은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초기 대상관계를 주체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신분석학 내부에 착종시키고, 모성의 기능과 역할이 주체화 과정에 어떤 매개항으로 역할하는지 환기시킴으로써 생물학적 존재 이상의 심리적 실체로서 어머니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로써 클라인은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남근일원론을 넘어설 뿐 만 아니라 정신분석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런 이유로 크리스테바는 클라인의 작업을 페미니즘에서 진지하게 사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테바와 달리 클라인 이론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표하는 시각도 있다(박선영, 2004; 홍준기, 2005). 전술한 바와 같이 어머니는 환상 속에서 구성된 어머니이지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젓가슴은 외부대상이면서 동시에 내적 이미지가기도 하므로 구체적 외부 현실로서 어머니가 아이의 주체 구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계를 생각해 볼 때 페미니즘에서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면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클라인의 이론적 작업을 계승하여 대상관계이론을 보다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초도로우는 전-오이디푸스 단계에서의 아이와 어머니와의 강한 애착관계를 성정체성 형성의 주요 동인으로 적극적으로 전유하고 활용한다. 초도로우에게 이 단계는 성정체성 형성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출발점(위던, 1993: 72)이 되며, 이 단계에서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주체 구성의 토대로 활용하여 후에 여성적 윤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장미경, 1999: 135).

5. 맺는 말

프로이트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정체성이 생물학적 몸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발달의 산물임을 이론으로 정초하여 본원적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페미니즘에 기여하고 친화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가시적인 성기적 차이에 근거하여 성차를 구성하기 때문에 남성적 준거에 의해 여성은 자연스럽게 부정으로 이해되어 불가능한 주체로 상정된다는 점과, 어머니를 의미 영역의 밖으로 축출하였다는 점 때문에 다시 페미니즘과 갈등을 빚는 이중적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클라인은 주체화의 무게중심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이동하고 프로이트에게서 유령화 된 어머니를 복원해냄으로써 정신분석과 페미니즘과의 친화성을 재형성할 뿐만 아니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오이디푸스 과정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초자아 형성에 이르기까지 주체화의 전 과정에는 어머니가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분석해내어 아버지라는 주체 구성의 유일한 봉인을 풀고 어머니에게로 주체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클라인의 어머니와 젓가슴은 아버지의 위치에 기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성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주체화 과정에 작동하는 어머니는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나아가 클라인은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 성에 제한된 영향력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조적 관계로 가족 내부의 역동성을 보다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프로이트를 뛰어 넘게 되며 발전적인 이론 세계를 구축하였다.

클라인이 주체 형성과정에 어머니의 영향력과 역할을 되살리고 복

권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기여이다. 그런데 어머니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클라인의 작업이 자칫 모성의 중요성이나 모성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논리로 동원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클라인의 제자 중 한사람이며 아동정신분석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위니컷(Winnicott)은 아이 양육 과정에 모성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 외부세계와 소통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는 '특별히 좋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모성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니컷의 주장은 클라인의 어머니가 환상에 토대하기 때문에 외부의 실제적인 현실로서의 어머니를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하여도 자칫 클라인의 이론이 모성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유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로 주체 구성의 토대를 수정한 클라인의 주장은 페미니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사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클라인은 주체형성 과정에 어머니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프로이트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기여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아직 한국 여성학계 내에서는 프로이트나 라캉에 비교하여 관심이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이 어머니 부재에 관한 것으로 정점화되는 것을 두고 볼 때 클라인의 이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클라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여성학계에 클라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보다 확장되고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노에, 알바(2009), 『뇌과학의 함정: 인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하여』, 김미선 옮김, 서울: 웅진씽크빅, Noe, A.(2009), *Out of Our Heads: Why You Are Not Your Brain, and Ather Lessons from the Biology*, New York: Hill and Wang.
- 들뢰즈, 질·펠릭스 가타리(2001),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서울: 새물결, Deleuze, G. and F. Guattari(1996),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2*, Paris: Editions de minuit.
- 박선영(2004), “멜라니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 이론 및 임상 체계의 비판적 재구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주영(2004), “환상 안에 있는 고딕 어머니: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 관계 이론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제13집, 57-69쪽.
- 버틀러, 주디스(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옮김, 파주: 문학동네, Butler, J.(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브라이도티, 로지(2004), 『유목적 주체: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박미선 옮김, 서울: 여이연, Braidotti, R.(1994), *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슬로터다이크, 페터(2005), 『냉소적 이성비판』, 이진우·박미애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Sloterdijk, P.(1987), *Kritik der Zynischen Vernun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시걸, 한나(1999),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이재훈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Segal, H.(1979),
Melanie Klein, Glasgow: Fontana.
- 위던, 크리스(1993),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구조주의 이론』, 조주현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Weedon, C.(1987),
Feminist Practice and Poststructuralist Theory, Mass.: Blackwell Publishers.
- 이만우(2002), “클라인과 라캉의 대화(3)”: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Journal of Lacan & Contemporary Psychoanalysis*, 4(1), pp. 115-153.
- 임옥희(2003), “가족로망스: 외디푸스화와 욕망의 삼각형”,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서울: 여이연, 19-33쪽.
- 임현주(2003), “코라”,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서울: 여이연.
- 장미경(1999),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서울: 문화과학사.
- 크리스테바, 줄리아(2006), 『정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성: 멜라니 클라인』, 박선영 옮김, 서울: 아난케, Kristeva, J.(2000), *Le genie Femini, tome II. Melanie Klein*, Paris: Gallimard.
- 프로이트, 지그문트(1996),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리적 결과”,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김정일 옮김, 서울: 열린책들, 9-24쪽, Frued, S.(1925), “Einige Psychische Folgen des Anatomischen Geschlechtsunterschieds”, *Drei Abhandlungen zur Sexualtheorie und verwandte Schriften*,

-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96.
- 해러웨이, 다나(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옮김, 서울: 동문선, Haraway, D. J.(1991),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 호머, 손(2006), 『라캉 읽기』, 김서영 옮김, 서울: 은행나무, Homer, S.(2005), *Jacques Lacan*, London: Routledge.
- 홍준기(2005),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서울: 아난케.
- Klein, M.(1975), *Envy and Gratitude and Other Works 1946-1963*, New York: The Free Press.

원고접수: 2011. 05. 06

원고수정: 2011. 05. 24

게재확정: 2011. 06. 02

〈Abstract〉

From the Subject Based on Father to the Subject Based on Mother

Hae-Jin Lee

Gender identity,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feminism, has been often discussed in literature. Biological determinism insists that gender stereotypes as male and female are determined at birth. Feminists oppose biological determinism because biological determinism is used as an ideology to justify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stratification in society. However, Freud insists that gender identity would be obtained from the development process rather than being determined at birth. Freud's theory makes a major contribution to feminism. Patriarchy and sexism can be attacked using his theory and thus can be used to change attitudes concerning gender identity.

However, Freud insists that femal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acquire penis envy and thus can not form a super-ego. He also ignor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a mother plays in a child's development. This opinion lead to a lot of criticisms of his theory, especially by feminists. To address this flaw, this article highlights the thought of Melanie Klein, who kept the Freud's psychoanalysis

but made her own independent theoretical framework. Klein, unlike Freud, emphasizes the role and importance of mothers in the gender identity formation process. All girls and boys experience primary femininity in the pre-oedipal stage because they have a strong attachment to their mother's breasts. Between 6 months to 2 years, they disconnect with their mother's breasts via a depressive position and go through sexualization when entering the Oedipus complex based on genital sexuality.

KEY WORDS: Melanie Klein, primary femininity, combined parent figure, gender identity, subject